

# 주간기도정보

2025. 10. 28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교계, 인구총조사 ‘동성 배우자’ 등록 허용 강력 반대

“인구주택총조사 동성 배우자 인정은 사실상 동성결혼 합법화 수준”



10월 22일부터 시작된 <2025 인구주택총조사> 지침에서 ‘동성 배우자’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인구총조사에서는 성별이 같은 경우 가구원과 가구주의 관계를 ‘배우자’로 입력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동성 간에도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변경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국가데이터처(통계청)가 ‘차별 논란 해소’를 이유로, 동성 간 가구주 관계 입력 제한을 해제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기독교계는 “헌법과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정 월권이자 사실상 동성혼 제도화의 첫 단계”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가구 형태의 다양화를 반영하기 위한 기술적 개선”이라고 설명했지만, 교계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통계 항목이 아니라 동성혼 합법화의 제도적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는 23일 논평을 발표하고, “이번 결정은 헌법 36조 1항이 명시한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항에 어긋난다”며 “행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혼인의 정의를 바꾸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회는 이번 결정이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인구조사에서의 인정은 곧 제도적 인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보험, 세제, 복지, 입양 등 각종 사회제도에서 ‘동성 배우자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동성혼 합법화 논의가 확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언론회는 “이는 가정 해체를 가속화하고, 다음세대의 성 가치관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 이승구)도 같은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동성 간 관계를 행정 상 배우자로 처리하는 것은 국민의 윤리감정과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즉각적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이번 정책에 대해 단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동성 간 관계를 행정적으로 ‘배우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법률의 정신에 어긋나고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과 윤리적 기준에도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동성결혼이 법제화된 외국에서도 행정상 인정이 법제화의 전단계로 작용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동성혼 합법화 논의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길원평 교수(진평연 상임위원장)는 “이번 결정은 법적 근거 없이 행정 절차로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한 것”이라 지적 했다. 그는 “혼인은 단순한 사적 관계가 아니라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국가가 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가치체계의 근본을 결정한다”며 “행정부가 인권과 다양성의 이름으로 헌법의 원리를 재해석하기 시작하면, 법 질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출처: 아이굿뉴스 종합).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디모데후서 3:13-15)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예레미야애가 2:19)

하나님,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다양성을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인구총조사에서 동성 배우자를 인정해 헌법과 양심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순리를 대적하는 행정 당국을 책망하여 주소서. 세상은 갈수록 악하여지고 교묘히 속이며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깨뜨려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악한 사탄의 간계 앞에 한국교회가 깨어 싸우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일어나 부르짖고 주의 얼굴 앞에 마음을 쏟는 생명 건 기도로 불 가운데 들어가는 조국을 주께로 돌이키는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옵소서.

## 2. 북한을 위한 기도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중국 공안, 브로커 회유해 ‘탈북 루트’ 장악…한국행 포기 속출

강제 북송 가능성 훨씬 높아졌다는 소문에 절망



중국 공안이 최근 중국 내 탈북민들의 한국행을 돋던 중국인 브로커들을 회유해 ‘탈북 루트’를 장악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브로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단속 시 강제 북송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탈북민들이 한국행을 포기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데일리NK 중국 현지 대북 소식통은 “중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한국행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위험해지고 있다”면서 “탈북민 이동을 돋던 중국인 브로커들이 공안의 회유에 넘어가 공안의 요구나 지시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공안은 탈북민의 한국행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 중국인 브로커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안에 소환된 이들은 주로 연변과 라오닝성 선양 등지에서 구간별로 탈북민을 인계·이동시키는 역할을 해왔던 이들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과거에는 공안에 적발된 브로커들이 곧바로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공안의 요구에 따라 탈북민을 유인하거나 신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은 중국인 브로커들에게 오히려 득이 되고 있다. 소식통은 “브로커들 입장에서는 탈북민에게서 돈도 받고, 공안에 협조도 했으니 체포될 염려도 없다”며 “결국 탈북민들의 한국행만 더 어려워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공안은 이렇게 브로커들을 통해 탈북민들의 주요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탈북 루트를 장악해 한국행에 나서는 탈북민 체포 작전을 벌이고 있다. 실제 코로나 이후 새로 개척된 탈북 루트들이 대부분 노출되면서 단속이 대폭 강화됐고, 탈북민이 체포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특히 최근 북중 관계가 개선되는 분위기 속에서 탈북민이 공안에 붙잡힐 경우 강제 북송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일부 탈북민들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한국행을 중도에 포기한 채 발길을 돌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지금은 브로커를 믿을 수도 없고, 단속도 심해 탈북민들이 ‘호랑이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꼴’이라며 한국행을 미루고 있다”며 “일단 위협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중국 내 탈북민들 사이에서는 “머지않아 탈북 루트가 완전히 막힐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는 “한국행을 하다 체포돼 강제 북송되는 것보다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 자수하는 편이 낫겠다”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출처: 데일리NK 종합).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시편 118:8-9,25)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브리서 12:2)

하나님, 중국 공안의 회유에 넘어간 브로커로 인하여 한국행을 꿈꾸던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의 두려움과 현실에 대한 절망으로 불안한 때를 지나고 있음을 돌봐주십시오.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중 관계를 위해 탈북민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양국의 위정자들을 꾸짖어 주시고 탈북자들의 발길을 형통하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북한과 탈북자들을 도우며 복음과 기도로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믿으며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고관이나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로다”

‘트렌디한 문화’로 포장된 무속…아이들 일상까지 파고든다

캐릭터 부적·명태 키링 등 확산, “운명주의의 사고, 자기통제력 상실 우려”



무속 관련 콘텐츠가 대중문화 속에 스며들며 저연령층까지 확산되고 있다. 무속적 요소가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문화로 소비되면서, 어린이·청소년의 무속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끈 K-팝과 무속을 결합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다. 또한, 실생활에서는 ‘굿즈’를 통해 점술 문화가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 중인 ‘캐릭터 부적’이 대표적이다. 부적에는 ‘벼락치기 성공 부적’, ‘돈쭐 날 부적’ 등 문구가 적혀있다. 이 부적들은 스티커나 키링으로 제작돼 가방·휴대폰에 다는 등 팬시용품처럼 소비된다.

액운을 막는다는 의미의 명태(북어)도 미니 인형이나 키링 형태의 액세서리가 됐다. 점술이 일상의 가벼운 ‘스낵 컬처’(Snack Culture)로 자리 잡은 셈이다. 문제는 무속 문화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아이들의 불안과 분노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학교나 상담기관에서는 아동 상담 과정에 타로카드나 과테말라 무속신앙에서 유래한 ‘걱정인형’을 활용하기도 한다.

온라인상에서는 이미 ‘저주 인형 만들기’ 같은 주술적 놀이가 퍼지고 있다. 학업 스트레스나 친구 관계의 갈등을 ‘저주’라는 방식으로 푸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5학년 학생이 교사 판정에 불만을 품고 ‘저주 인형’을 만들어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은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인형에 교사 이름을 뱉간색으로 적고, 샤프와 볼펜으로 눈과 몸을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지윤 큰사랑심리상담센터 대표원장은 “미디어를 통해 학습된 주술적 행위가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진 극단적 사례”라며 “아동의 분노 조절 능력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점술 문화 확산에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아직 사고력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 무속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점술을 단순한 놀이로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노력보다 운명에 기대는 ‘운명주의적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운세 결과에 따라 하루 기분이 좌우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별자리나 부적 탓으로 돌리는 등 자기 통제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성장기에는 스스로 노력해 결과를 얻는 경험이 중요한데, 무속에 의존하면 그런 역량이 자라지 못한다”며 “처음엔 불안을 달랠는 듯해도 결국 중독이나 강박·공황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어릴 때부터 무속 문화에 익숙해지면 성인이 된 뒤에도 영향을 받기 쉽다”며 “부모와 교사는 대중문화와 소비상품 속 무속적 요소를 살펴 주의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시편 37:5-7)**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디모데전서 1:18-19)**

하나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과 미움을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해, 어른들의 풍속이라고만 생각했던 무속이 아이들의 문화 속에 무분별하게 파고든 이 세대를 깨워주십시오. 무속을 대중문화와 놀이로 포장하여 다음세대가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하고 운명주의와 저주의식에 빠지게 하는 배후의 악한 사탄을 십자가 복음으로 드러내어 멀하여 주소서. 다음세대를 말씀으로 교훈하사 자신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주를 의지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지 않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살아계신 주의 증인으로 세우사 불안한 미래와 분노에 잠식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잠자히 기다리는 예수교회로 함께 일어나게 하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